

봉선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 지상 중계 ③

혜남 스님(통도사 율주 前 강주) / 화엄경(9월 30일)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박 초경 봉선사 강설대법회

허공가량풍가계(虛空可量風可繫) 무능진설불공덕(無能盡說佛功德)

약유문사공덕해(若有聞斯功德海) 이생환희신해심(而生歡喜信解心) 여소칭양심당혹(如所稱揚悉當獲) 신물여차생의염(慎勿於此生疑念)

중생의 생각이 얼마나 많든지 삼천대 천세계를 가루로 만든 만큼인데, 이를 다 헤아려 알 수 있고, 큰 바다의 물을 다 마실 수 있고, 허공의 크기를 다 헤아리고, 바람을 꺾을 수 있어도 부처님의 공덕은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부처님의 공덕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러한 부처님의 공덕을 듣고 기뻐하고 믿는 마음을 낸다면 자기 청승한대로 모두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삼가 부처님의 공덕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강조하는 이 계승은 80권본 <화엄경>의 맨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부처님의 공덕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십중대원'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공덕을 성취하려면 마땅히 열 가지 광대한 서원을 닦을 것을 권유하면서 1.모든 부처님을 예배하고 존경할 것(禮敬諸佛願) 2.모든 부처님을 널리 칭찬할 것(稱讚如來願) 3.널리 공양을 닦을 것(廣修供養願) 4.업장을 참회하여 없앨 것(懺除業障願) 5.남의 공덕을 따라서 기뻐할 것(隨喜功德願) 6.설법하여 주기를 요청할 것(請佛法輪願) 7.부처님이 세상에 머무시기를 청할 것(請佛住世願) 8.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울 것(常隨佛學願) 9.항상 중생을 수순할 것(恒順眾生願) 10.널리 다 회향할 것(普皆迴向願)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선재동자가 "어떤 것이 예경이며 내지 회향이나"고 질문함으로써 <보현행원품>의 법문은 시작됩니다.

부처님과 같은 공덕을 성취하려면 제일 먼저 시방삼계에 가득한 수많은 부처님을 모두 존경해야 합니다. <화엄경>에서는 "부처님의 법신(法身)이 육도를 유전하는 것을 중생이라고 부른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모든 중생들의 참모습이 바로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주위의 모든 이가 부처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처님의 화현을 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할 뿐이어서 부처님을 공경하고 찬탄하듯 모든 이들 칭찬하고 예배하며 공양하겠다는 원을 세워야 합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 가운데 제일 수순한 것이 법공양입니다. 중생의 고통을 대신하고 부처님이 설하신 대로 실천하는 것,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공양이 최고의 공양입니다. 자신의 업장을 참회해야 합니다. 중생계가 다할 때까지 부처님의 공덕은 물론 성문(聲聞), 연각(緣覺) 더 나아가서 일체중생의 공덕을 모두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잘 못한 것이 있으면 지체 없이 참회하여야

보리심에는 대원(大願) 대비(大悲) 대지(大智)가 따라야 합니다. 중생을 수순해서 큰 원과, 큰 자비심, 큰 지혜를 가져야만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법회를 마치거나 기도를 끝내면 '회향'이라고 하는데, 회향의 참 의미는 중생을 위한 '방향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중생을 위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회향하고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제도하라는 생각까지 뛰어 넘은 실제적 진리를 향해 방향을 돌리겠다는 원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 열 가지 행원을 실천하는 것은 바로 대원을 성취하는 것이며, 이를 따라 수행하면 바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 중생을 구제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가



교리에 통달해 교법에 의지해 수행하면 능히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 혜남 스님의 법문을 경청하는 불자들.

합니다. 수회(隨勸)라는 것은 남의 공덕을 덩달아 좋아하는 것인데 부처님의 공덕을 위시하여 성문 연각 일체중생의 좋은 점 잘한 일은 덩달아 좋아하여야 합니다. 대승 불교의 최고의 덕목이 수회와 회향이라고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문을 청하는 것도 빼어난 공덕인데, 오늘 봉선사 스님이 대중들을 위해 법사를 불러 설법장을 만들어 주신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또한 부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오래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아난이 부처님 열반 후 대중공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지 말기를 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처님처럼 사신족(四神足)을 닦은 분은 자신의 의지대로 1겁이나 그 이상도 세상에 머물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또 항상 부처님을 따라서 배우고 중생을 수순하여야 합니다.

며, 보현보살의 원력을 원만 성취하는 길입니다.

공으로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전에 의지해 수행하는 열 가지 방법은 1.서사(書寫·사경하고 따라 베껴 씀) 2.공양(供養·항상 경을 찬탄함) 3.전시(轉施·경전의 내용을 전하여 읽게 함) 4.청문(聽聞·법회에 나가 법문을 들음) 5.피독(披讀·경전을 항상 읽음) 6.수지(受持·늘 몸과 마음에 받들어 지님) 7.개시(開示·스스로 의미를 통달하고 항상 설법을 해서 남에게 알리는 것) 8.풍송(誦誦·항상 노래 부르듯 경전을 외움) 9.사유(思惟·경전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고 올바르게 이해) 10.수습(修習·스스로 교리를 통달하고 법을 의지해 수행하는 것) 등입니다. 이렇게 교법을 수지하면 올바른 수행의 방법이 됩니다.

정리=조용수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질의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 찾아 보세요



성관 스님(통도대 철학박사·여래선원장)

[질문] 중생이 실질적으로 경전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혜남 스님] 복위시대 낙양의 사찰들에 관해 양현지가 쓴 <낙양기림기>에는 송진사(崇真寺) 혜승 스님이 죽었다가 7일 만에 살아나 열라대왕 앞에서 재판을 받았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5명의 스님이 같이 열라대왕의 재판을 받는데 좌선수행과 경전독경을 한 스님은 천당으로 가는 것이 허락되지만 법회를 열어 대중을 이끌고, 가람을 짓는 일에만 매달린 스님은 흑문(穴) 옥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말해주듯 독경을 하나의 수행방법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양나라 혜고 스님의 <고승전>에서는 다음의 10과 중에 하나만 수승해도 큰 스님이라 불렀습니다. 1.역경(譯經). 경을 하나의 수행방법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의해(義解). 경전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하는 스님을 큰 스님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으로 쳤습니다. 3.신이(神異). 의술이나 신통 이력을 일으킬 수 있는 스님 4.습신(習禪). 참선하는 스님 5.명률(明律). 계율에 밝은 스님 6.망신(亡身). 몸을 돌보지 않고 불법을 지키는 스님 7.송경(誦經). 경을 잘 외우는 스님 8.흥복(興福). 공덕을 많이 쌓은 스님 9.경사(經師). 법패를 잘하는 스님 10.도사(導師). 열불 잘하는 스님을 말합니다. <속고승전>도 이와 비슷한 10과로 고승을 구분하는데 역경, 의해를 앞에 놓는 순서는 절대 변하지 않을 만큼 이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수지 독송하거나 사경하고 해석하는 것이 좋은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수행하는 것은 행복을 찾기 위한 것입니까.

(明律). 계율에 밝은 스님 6.망신(亡身). 몸을 돌보지 않고 불법을 지키는 스님 7.송경(誦經). 경을 잘 외우는 스님 8.흥복(興福). 공덕을 많이 쌓은 스님 9.경사(經師). 법패를 잘하는 스님 10.도사(導師). 열불 잘하는 스님을 말합니다. <속고승전>도 이와 비슷한 10과로 고승을 구분하는데 역경, 의해를 앞에 놓는 순서는 절대 변하지 않을 만큼 이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수지 독송하거나 사경하고 해석하는 것이 좋은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수행하는 것은 행복을 찾기 위한 것입니까.

선행 많이 한다해도 보리심 없으면 헛일



권탄준(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질문] <화엄경>에서처럼 믿음이 충분하면 부처를 이룬다는, 보살도수행과 단순한 수행의 차이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혜남 스님] 믿음이라는 말은 <화엄경>에서 광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법문이 많이 나옵니다. 믿음이 이마랄로 도에 이르는 으뜸이고 공덕의 어머니이며 일체 공덕을 키워내는 근원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심을 잃으면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은 마구니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육바라밀도 믿음이 뒷받침 되어야 진정한 육바라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배고픈 이, 집 없는 이, 병든 이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일

자리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보시인 것 같고 마땅히 생각합니다. 내가 인욕바라밀을 한다고 해서 남이 죄짓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나, 물에 떠내려가는 여인을 보고서도 계율을 지키려 구하지 않는 수행자가 있어서는 안되는 것처럼 보리

심 없는 수행은 여러척만 합니다.

[질문] <화엄경>은 언제 어디서나 진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설하고 있습니다. 보살행 실천으로 누구나 쉽게 깨달음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혜남 스님] 선(禪)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敎)는 부처님의 말씀이고 율(律)은 부처님의 행풍이니 모두 부처님의 것이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서산대사는 선교일치를 강조했습니다. 모든 수행법을 다 하나의 것으로 보면서 조선 말기에는 열불과 선을 합친 열불선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에서는 늘 선이 있습니다. 자신의 근기에 맞는 수행이라면 참선 열불 주력 독경 어떤 방법으로도 도에 이르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알기쉬운 佛敎 儀式

新刊 通用佛敎儀範 案内



귀의심보하옵고 불교란 어떤종교인가?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업과에 의한 윤회를 받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종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행하는 불제자로서 의식법전의 순서의 어려움이 많아 수행하는데 우월좌왕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모든 불교의식집을 참고로 하여 의식을 간편하게 편집하였습니다. 의식이란 보는 이에 따라 甲論乙說이 있겠으나 수행 초심자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이 의식집을 펴면 단 페이지를 찾지 아니하고 모든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통용불교의범 특징

불보살 모든 불교의식은 불교의식 대로 편집되었으며 제목만 찾으면 모든 불공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인 것입니다.

- 제1장 승주편 제2장 예경편 제3장 전각예경편 제4장 불공편 제5장 모든법회 제6장 방생 제7장 재물보살경의식 제8장 절보살 파불의식 제9장 점안편 제10장 이운편 제11장 수계편 제12장 고사편



대한민국 불교 교단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께 소송 법진이 합장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소송이 2년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2권의 불교의식집을 출간하여 모시오니 사용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무마하야 바라밀

알기쉬운 齋禮 儀範

新刊 通用齋禮儀範 案内



천지시간 만물지중엔 유인이 최귀하고 유 만물지 중에 유인이 가장 최귀하니 사람이 있으면 예(禮)가 있고 예(禮)가 있으면 의식(儀式)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1700년 역사속에 祖師님께 집필하신 의식집이야말로 참으로 고귀하고 완벽한 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가지고는 어느 것을 면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하는지 순서를 몰라서 우월좌왕하는 때가 비일비재(非一非再)입니다. 또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제례의식을 맞도록 모든 불교의식집을 토대로하여 조보자라 하더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 제1장 시식편 제2장 장의편 제3장 다비편 제4장 사제사 제5장 재공편 제6장 기제사 제7장 靈魂結婚禮

주문처: 호국불교효예중 총무원 출판부 발행처: 도서출판 도승 편·저자: 법왕불교대학장 신법진 합장

☎ 02) 963-0607, H.F: 017-361-1131 ☎ 043) 264-3008, H.F: 011-9607-2199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421-3번지 국민은행: 027701-04-060958 우체국: 013409-01-001220 예금주: 호국불교효예중 총무원